

아! 푸에르토√리코

- 2011산후안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다녀와서 -



글 | 홍 정 립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도서관 사서사무관

jihong91@mofat.go.kr

푸에르√토리코가 뭐니!

구내 식당에서 우연히 2005년도 오슬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함께 다녀왔던 선배를 만났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관장님 모시고 IFLA 출장 간다며? 좋겠다, 아닌가? 윗분하고 같이 가니까 피곤한 출장인가? 호호 참, 이번에는 개최지가 어디야?”라고 물었다. “푸에르√토리코예요.”라는 나의 대답에 워낙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그 선배는 한심하다는 듯이 웃으며 “어머, 애! 푸에르√토리코가 뭐니! 외교부 직원이 창피하게. 푸에르√토리코지!”라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는 서인도제도(카리브해)의 대(大)앤티리스 제도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으로 스페인어인 ‘푸에르토(Puerto)’는 영어로 ‘rich(부유한)’란 의미이고, 리코(Rico)는 영어로 ‘port(항구)’란 의미로 즉, 푸에르

토리코는 ‘부유한 항구’라는 의미였다. 내가 스페인어를 알았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푸에르토리코는 1493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 1508년 스페인령이 되어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미국-스페인전쟁 이후 1898년 미국이 점령하여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52년 국방·외교·통화를 제외한 내정을 이양받아 미국의 자치령이 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주장하는 운동과 미국의 완전한 주(州)로 승격하기 위한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본래는 섬 이름이 ‘산후안’이고, 수도의 이름이 ‘푸에르토리코’였는데, 세월이 지나며 두 명칭이 서로 바뀌었다고 한다. 언어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영어는 공식 석상이나 호텔 등에서는 쓰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았다. 특히 모든 표지판이나 지명, 건물 등에 스페인어로만 표기되어 있었고 영어는 병기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불편했다.

어째 출발부터 심상치 않네

필자의 첫 해외 출장은 1995년 마카오 출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약속시간 보다 10분 늦게 공항에 도착하는 바람에 같이 가기로 되어 있던 일행들을 만나지 못해 두려움에 떨며 홀로 비행기를 타야했던 뼈아픈 추억(?)이 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약속 시간보다 최소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미리 공항에 도착하고는 한다. 이번에는 공항버스가 일찍 오는 바람에 약속 시간인 아침 7시 30분 보다 1시간 30분이나 먼저 인천공항에 도착해 버렸다.

너무 일찍 도착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던 것 같다. 도착해서 집결장소인 'A카운터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았으나 우리 참가단으로 짐작되는 그룹은 보이지 않았다. 차츰 모인 다른 참가자 6~7명과 함께 나머지 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곳이 집결장소가 아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최영순 관장님이 전화를 주신 덕분에 허둥지둥 겨우 참가단에 합류 할 수 있었다. 원래 집결 장소는 A카운터 지역의 35번 여행사 데스크였고, 필자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기다린 곳은 대한항공사 탑승 수속 35번 데스크 앞이었던 것이다.

정말 멀긴 멀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쉽 없이 날아서 약 14시간 만에 애틀란타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멀리 가는 해외 출장이 처음도 아니건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특히, 미국 입국 검색대를 지날 때의 불쾌한 감정은 반복되어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10m 정도 걸어야 하고 허리띠까지 풀어야 한다. 테러 등을 대

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검문 당할 때마다 기분이 정말 언짢다. 인천공항에서도 신발을 벗고 검문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슬리퍼를 제공하는 센스를 발휘하는데 말이다.

짐을 다시 부치고 몇 시간 더 기다린 후 다시 델타 항공기로 갈아타고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공항으로 향했다.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날 때는 이상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심하게 상하로 요동을 치기도 했는데, 불안감을 떨치고자 놀이공원의 '자이로드롭'을 무료로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 상상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애틀란타 공항을 떠난 지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디어 산후안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시간만 약 18시간에다 중간에 갈아타기 위해서 대기한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다.

참가자 등록증을 목에 걸고

전날 밤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아 무척 피곤한 상태였지만, 도서관 방문이 선착순 접수였기 때문에 원하는 도서관 방문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대회 등록을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다. 우리 참가단의 인솔 여행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걸어서 대회장까지 가 보기로 하였다.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회장까지 도보로 2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는데 여행사 직원은 우리 일행들로부터 걸어가는 동



▲ 대회 등록부스



▲ 개회식장에서



▲ 문화의 밤(민속춤 공연)

안 호텔에서 대회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불평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회의기간 동안 대회장과 호텔을 약 20~30분 간격으로 순회하는 5가지 노선별 셔틀버스 덕분에 처음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불편함이 덜했다.

대회 등록부스에서 참가자 등록증을 받아 목에 걸면서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 실감이 났다. WLIC의 공식 프로그램인 언어별 모임이 이번 대회에서는 13개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의 한 세션으로 '한국어 참가자 모임(Korean Caucus)'이 진행되었다. 2005년도 오슬로 대회보다 높아진 WLIC 내 우리나라의 위상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 참가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문화 등을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 참가자 모임에 이어서 쉐라톤컨벤션호텔 2층 산펠리페홀에서 WLIC에 참가한 한국인들의 모임인 '한국인의 밤'이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테이블별로 나뉘어 앉을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참가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정도로 범위가 한정된 점이 아쉬웠다.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서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더라면 더 많은 분들과 쉽게 친해 질 수 있지 않았을까?

문화의 밤 행사는 기상관계로 기존의 개최 계획 장소인 올드 산후안 역사지구 내 발라자(Ballaia) 야외 광장에서 푸에르토리코컨벤션센터 전시홀C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었다. 행사 개최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올드 산후안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매우 아쉬웠는데, 변경된 장소의 아기자기하고 아름답던 실내 장식과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미소로 맞이해 주던 루이자 비고-세페다(Luisa Vigo-Cepeda) 2011 WLIC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엘렌 티세(Ellen Tise) IFLA 회장의 노고 속에 아쉬움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댄스파티의 중간에 젊은 남자외국인 참가자가 시작한 '인간 기차 만들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갔는데, 인종, 나이, 성별, 지위를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 즐기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주제발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여러 분과 주제발표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우리 도서관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지면관계상 필자가 참가했던 주제발표 중에서 다음의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활용능력과 독서분과 · 국가도서관분과, 8.15
(Beyond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Literacy : what libraries can do)

이 분과 회의에서는 새로운 진행방식을 채택하



▲ 주제발표 참여

여 참가자들이 주제발표가 길고 지루해서 졸거나 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1인의 주제발표자가 단상에서 다수의 청중을 향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지던 단조로운 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중이 가까이에서 직접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반카 스트릭셰빅(Ivanka Stricevic) 활용능력과 독서분과위원장과 마틴 웨이드(Martyn Wade) 국가도서관분과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 설명과 자니스 칼클린스(Janis Karklins) UNESCO 커뮤니케이션&정보 부국장의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회의장에 준비된 11개의 테이블(멕시코,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테이블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주제발표를 청취 후 질의응답 및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1인당 테이블을 선택할 3번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1회 당 15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까지 모두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신선함이 있었다.

9번 테이블을 담당하였던 이숙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한국의 전략”에 대해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싱가포르의 한 참가자는 이숙현 관장이 주제발표 보조 자료로 준비해온 ‘청소년 읽기

도서 목록 포스터’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도서관건축·설비분과, 8.17

(Sustainability issues in the design of libraries : the importance of creat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library facilities and spaces in the 21st Century)

이 분과 회의에서는 건축의 새로운 경향인 ‘Green/Sustainable’의 개념 정립 및 도서관 빌딩 프로젝트의 개요, 그린 빌딩에 대한 국제평가기준, 그린 빌딩 우수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린 도서관 빌딩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공유된 개념 정립에서 출발하며, 개념 정립의 요소로서 에너지 효율, 지역 자원, 재료 보존, 디자인의 폐기물 감소, 실내 환경 품질, 혁신 등에 대한 공통 설계 요소와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그린 도서관 빌딩의 주요 목표는 폐기물·오염·환경 파괴의 감소를 통한 건물 사용자의 건강 보호 및 지역사회와 개인 삶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활력의 연속성 추구이다.

그린 빌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평가기준이 생겼는데, 그 중에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 International Program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린 빌딩 인증시스템으로 미국의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2000년 3월에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린 건축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 솔루션을 제공하며, 그린 빌딩 인증 4단계(인증, 실버, 골드, 플래티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린 빌딩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채광, 빗물, 지하수, 바람 등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건축자재는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만드는 점이 공통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수사례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두 곳은 지하수를 냉각시키거나 가열하여 냉난방에 활용한 LEED 실버 인증을 받은 로버트웨슬린안대학(Roberts Wesleyan

College)의 토마스골리사노도서관(B. Thomas Golisano Library)(2007년 건축)과 옥상의 자동 관개(灌漑)시스템을 통한 빗물의 재활용 등으로 그린마크(Green Mark)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싱가포르국립도서관(2005년 건축)이었다.

RFID 특별관심그룹 회의, 8.18

(Ten years on : the use of RFID technology in library context. What is our main point of interest to support, maintain and develop this cutting-edge technology)

RFID 특별관심그룹 회의에서는 도서관 환경에 있어서의 RFID 기술의 발전 현황과 각국별 사례를 통한 RFID 기술에 대한 전망 및 앞으로의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도서관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의 많은 부분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진화 환경과 RFID의 상호 운용에 대한 현대적인 프로토콜의 필요성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도서관에 있어서의 RFID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도서관에서의 기존시스템과 서비스에 미친 RFID의 영향과 RFID 사용 증가를 모니터링한 결과 발표가 있었다.

호주의 사례 발표에 나타난 RFID의 현황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비의 하드웨어 비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경우는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이슈로는 'RFID 관련 보안 문제'로 RFID 칩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 RFID의 매우 획기적인 기술 혁신 사례로 우리나라 순천대학교를 예로 들었는데, 유기물질 잉크젯 프린트 인쇄를 이용한 저가용 RFID 태그의 세계 최초 개발에 대한 소개였다. RFID가 바코드를 대신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으로 RFID 태그를 프린트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다. 이국 만리 타향의 큰 국제회의에서 외국 참가자가 자신의 사례발표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예를 모델로 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감격스러움이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견학

이번 산후안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견학 공식일정은 아쉽게도 8월 19일 단 하루뿐이었다.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총 36개의 견학 코스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단 일행은 8월 19일 오후에 뉴욕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식 일정에서는 단 1개 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곳을 볼 수 있는 대법원도서관과 입법도서관이 묶여 있는 1A 견학코스를 신청하였고, 국립도서관은 개인적으로 방문해야만 하였다. 사실 제일 가보고 싶은 도서관은 카네기도서관이었는데 갑자기 방문코스에서 제외되어서 실망스러웠다.

푸에르토리코 대법원도서관

8월 19일 오전 8시 45분까지 대회장에 모여서 대법원도서관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아침을 먹고 대회장으로 향했다. 대법원도서관 안내자가 갖고 있는 방문자 리스트에는 열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최영순 관장, 임희선 행정관(대법원도서관), 나이지리아 참가자 2명을 포함하여 필자까지 모두 5명뿐이라서 오붓하게 VIP대접(?)을 받으면서 견학할 수 있어서 좋았다.

푸에르토리코 대법원도서관은 법률관계 전문도서관으로서 대법원 빌딩 내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법정에 빠르고 효과적인 최신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



▲ 대법원도서관 열람실



▲ 대법원도서관 관계자와 함께

공의 우선순위는 법관 및 법원의 임원, 소속 직원 순이나 그밖의 산하 사법 기관의 모든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 및 공공도서관에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장서량은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유럽 등의 법률관계 자료 약 100,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고, 그 중에 특수컬렉션으로 19세기 스페인어 법률관계 자료 등이 있으며, 이 특수컬렉션에 대한 이용범위는 도서관을 통한 연구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서고는 폐가식 운영으로 참고봉사 안내데스크에 자료를 신청하여 도서관의 열람실 안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온라인DB인 Westlaw, Lexis 등은 IP 접속 방식으로 도서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CD-ROM 형태의 자료는 도서관내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도서관 재량에 따라 외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SEBICat' 이란 온라인 공개 목록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을 통하여 산하 사법 기관 도서관의 직원 모두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원도서관의 경우, 공개 목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임희선 행정관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도서관에서 발행한 『외국어법률용어집(스페인어판)』을 준비해 와서 전달하였고, 뜻밖의 선물을 받은 푸에르토리코 대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매우 기뻐하였다. 푸에르토리코 측은 우리 한국인 방문자들을 위해서 소

장하고 있는 『한국의 상법』 책을 미리 준비해서 보여 주었는데, 외국 도서관에서 만난 한글로 쓰여진 도서가 무척 반가웠다.

푸에르토리코 토마스보닐라펠리치아노 입법도서관 푸에르토리코 대법원도서관 견학을 마친 다음 주 최 측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푸에르토리코 토마스보닐라펠리치아노(Tomas Bonilla Feliciano) 입법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두 도서관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비가 와서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푸에르토리코 토마스보닐라펠리치아노 입법도서관은 개정된 법령 59호에 의해서 1964년 6월 19일에 입법서비스사무실(Office of Legislative Services) 산하에 설치되었다. 예전 열대의학학교(School of Tropical Medicine) 북쪽 건물 1~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법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의회, 입법서비스사무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행정업무 및 입법 절차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의 우선순위는 의회 의원, 입법 보좌관, 입법 고문, 모든 입법위원회에 순이나 다른 정부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에는 입법도서관 내에 푸에르토리코 상원과 하원위원회 입법 문서자료실이 추가로 설치되어 푸에르토리코 상원과 하원위원회 입법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 입법도서관 관계자와 함께



▲ 입법도서관 열람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서관 건물 등 시설 환경은 낡았지만, 이용자 서비스는 실시간 가상 참조 서비스 실시 및 장애인 지원 보조기술센터의 별도 설치 등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글을 마치면서

2011년도 산후안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부터 최신 도서관 관련 정보 습득 및 각국에서 참석한 사서들과의 업무관련 의견 교환을 통하여 서로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현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서관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책 및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개발에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도서관이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도서관도 계속 진화를 해야 한다. 벌써 세계 도서관계는 변화의 큰 물결 속에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환경, RFID 등의 기술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이 융합된 첨단 서비스 등 과학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도서관 본연의 목적 및 존재가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녹색의 물결까지 도서관 진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때 자연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 등을 엄밀히 적용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 사정 등 우리나라의 실

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009년부터 채택되어 3회째를 맞이한 한국어 참가자 모임, 올해 처음 채택된 우리나라 주도의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예비회의, 이숙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의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발전사례에 관한 주제발표 등을 통하여 IFLA 내 더욱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 모든 행사에 한국대표단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행복했다. 특히 대회장에서 만난 외국인 참가자들의 경우, 주로 중국인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2006년도 서울대회를 기억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자랑스러웠다.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대부분 어느 한 분과에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도서관계의 형편상 한 기관에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참석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져 도서관 관계자가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어가 IFLA 공식 언어이며, 우리나라 사서들이 IFLA 집행위원회의 중책을 맡고 있고,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인 사서들이 골고루 소속되어 IFLA의 발전에 많은 활약과 공헌을 하며, 포스터세션 최우수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끼리 서로 경쟁하며, 분과 주제발표 때마다 한국인

발표자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흔한 세계 도서관정보대회, 그런 대회를 꿈꿔 본다.

소소한 이야기

아마 ‘주고도 욕먹는다’는 것이 이런 경우일 것이다. 대회 등록 시 지급받았던 파란색의 배낭은 가볍고 방수 기능까지 있는 것 같아서 좋아했던 것도 잠시, 봉제선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파란색 배낭의 찢어짐으로 인한 폐기와 동시에 회의는 끝이 났다. 그나마 회의 중간에 배낭이 수명을 다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산후안의 우리 호텔 주변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음식점과 편의점 몇 곳을 제외하고는 빌딩들이 모두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거리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로변을 한 블록만 들어가도 곳곳에 뉴욕의 슬럼가를 연상시키는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가 마구 되어 있어 무서운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느새 적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트롤리를 타고 시원한 바람 속에 여유롭게 바라보던 올드 산후안 거리, 푸른색 벽돌 바다, 산후안 북서쪽 바닷가 절벽에 세워진 엘모로 요새와 그 앞에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 광장, 엘모로 요새 동쪽의 인상적이던 산후안 묘지, 엘모로 요새와는 또 다른 느낌의 산크리스토탄 요새, 외형은 수수하나 무척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실내장식의 산후안 성당, 올드 산후안 거리의 예쁜 스페인풍의 집들, 콘다도 호텔

앞 모래사장과 그 바닷가에서 맞이한 일출, 국립도서관 앞의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던 바닷가, 아름다운 스페인풍 건축물과 소방서박물관이 인상적이었던 폰세, 그리고 친절했던 대회 자원봉사자들, 앞으로 푸에르토리코를 생각하면 떠오를 추억의 단상들이다.

“온라인DB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 집에 올 때 준비물 사다주세요.” 이제 평범한 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산후안은 ‘파라다이스’였다. 오직 나만 생각하면 되고, 나를 위해서만 생활할 수 있던 곳이 벌써 그리워진다.

해외 출장을 여러번 가봤지만, 일행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섭섭했던 건 또 처음인 것 같다. 혼자 남겨놓고 와서 마음이 아팠던 항상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심수희 님,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 유정인 님, 공항버스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임희선 님, 대표단의 막내지만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났던 이향현 님, 함께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유쾌한 구지현 님, 맑은 목소리의 김중희 님, 멋쟁이 조원향 님, 부드러운 목소리의 박재섭 관장님, 다정 다감하셨던 김경욱 관장님, 흰머리가 너무 매력적이신 남태우 협회장님,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던 한국도서관협회와 여행사 관계자분들, 그 외의 참가자 분들 모두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